22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

창 6~9장, 마 24:37~39
찬송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오늘 배울 말씀

1. 하나님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심을 압니다.
2. 지금이 마지막 시대임을 알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 ]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 ] 에 이른줄 알라 (마 24:32~33)

말씀을 이해하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대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셋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을 떠나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며 하나님을 저버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들로 인해 세상에 홍수 심판이 닥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녹을 통해 세상의 심판을 경고하셨으며, 그 경고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에녹의 승천을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므두셀라('그가 죽으면 오리라'의 의미)의 유래 없는 장수를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또 이 기간 중에는 120년이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포함되었으며, 이 기간 중에 노아는 의를 전파하면서 방주를 지음으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 며칠 동안 동물들이 자기 발로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심판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두려운 날 죄인들은 당황하며 후회했지만 기회는 결코 다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홍수는 이 땅에서 코로 숨 쉬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과 불심판을 경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이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는 징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공과말씀 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벧후 3:6~7)

by which the world that then existed perished, being flooded with water. But the heavens and the earth which are now preserved by the same word, are reserved for fire until the day of judgment and perdition of ungodly men. (2P 3:6~7)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홍수로 인해, 땅위에 생명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에서 찾아 적어 봅시다(창 7:21~23).

2 우리 시대에는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말씀에서 찾아 5가지 이상 적어 봅시다(마 24:3~14).

3 성경을 통해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를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려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죄를 찾고 가까이 하려 합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본 뒤 적어봅시다.

4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끝날에 대한 자료(기사, 영상 등)를 조사해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서로 교제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잠 1:25~26	
월	사 28:22	
화	마 24:38~39	

수

눅 17:28~30

목

고후 6:1~2

금

벧후 3:6~7

토

벧후 3:9

미래에의 위험

어느 날 많은 신문 기자들이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 부드 장군에게 특별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부드 장군이 기자 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기가 바쁘게 한 기자가 기다렸다는 듯 질문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있어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지 장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늙은 장군은 마치 하나님의 영감이라도 받은 듯 번개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세계에 다가올 가장 큰 위험은 교회가 세계에 주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이 없는 용서를 제공하는 철학적 기독교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고 성령이 없는 기독교와 하나님이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골 2:8)

질문 있어요~

그 많은 민족 중에 왜 하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급기야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창 11장).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찾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거하기 위해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경을 이루며, 그리스도가 나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 필요했습니다(신 7:7). 그래서 하나님은 기존에 있던 민족이 아닌 새로운 민족을 세우기 원하셨고, 그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이기 위해 그 민족을 세상 중앙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일이나,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망한지 1900년 만에 그 옛 땅에 다시 세우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느냐,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영광뿐 아니라 환난과 핍박도 이스라엘처럼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민족이었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큰 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하면 큰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